

## 한국,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

-이종호 과기부 장관, 한국 원자력 기술 우수성 홍보,  
우리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협력 요청-

2024. 3.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목),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친원자력 유럽연합(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 원전운영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 원자력 발전착수 준비국(필리핀, 사우디,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소형모듈원전(이하 ‘SMR’)을 포함한 차세대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하여 원자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 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1971년 원전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하여 36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소개하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능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해외 원전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원자력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넷제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이행수단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향후 구상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설명했다.

\*\* COP28 선언문에 원자력을 청정 기저전력원(clean dispatchable baseload power)으로 언급하고 22개국(한·미·영·일·스웨덴등)은 원전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대비 3배이상 확대하는 “Triple nuclear capacity by 2050” 채택

\*\*\* ‘23.9월 유엔총회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

“인공지능(이하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환경적 여건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오늘날의 에너지 공급환경을 설명하며 “산업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벨기에, 미국, UAE, 스웨덴 등 각국 수석대표들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과 “오늘날 우리가 AI 일상화에 따라 에너지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전력 반도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MR을 비롯한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주) 등 원자력 연구기관 및 산업계도 참석하여 주요 협력국의 유관기관들과 원전 및 차세대원자로 프로젝트 등의 협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전개하였다.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우리 정부의 평화적인 우주 이용 관련 국제사회의 신뢰 강화에 기여-

2024. 3. 21.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하였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 우주과학관 견학 ▲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탄도미사일에 관한 국제사회 유일의 규범으로, 2024년 3월 기준 144개국 가입

- 규범 제4조에 명시된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발사 시설 방문 초청 포함
- 행사 개최 현황: 노르웨이(2004년), 일본(2005년), 프랑스(2011, 2022년)

\*\* 호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